

# 조선시대 여자복식 감정을 위한 각 시대별 특징 연구

- 15세기-18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

송 미 경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to Identify the Women's Costume of the Joseon Dynasty.

- Based on the Excavated Costumes from 15<sup>th</sup> to 18<sup>th</sup> Century -

Mi-Kyung Song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8. 1. 15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excavated women's costume of the Joseon Dynasty, and to help identify the period of those costumes with the time of the burial unknown. The excavated women's costume is concentrated in 16th to 17th century, and the reason is due to the method of the burial.

The characteristics of costumes from each period is as follows. The special features about 15th century costumes are the women's Dan-ryeong(round-collared jacket), Dae-gum style shirt(shirt with the squared collar facing each other), and skirt with horizontal dart. The 16th century costumes are the women's Dan-ryeong, wide Jegori with various length, skirt with horizontal dart, skirt with its hem folded, and pants with shoulder strap. In the 17th century, the formal dress changes to Won-sam from Dan-ryeong. The collar changes from the squared shape to the cut Dang-ko collar, and the skirt with its hem folded is not seen after the early 17th century. The long jacket changes to Dang-ui and gets settled, and the clothes becomes smaller and tighter. In the 18th century, the women's formal dress gets settled to Won-sam and Dang-ui, and the pants with shoulder strap is no longer seen. Jegori becomes shorter and smaller compared to those from the 17th century, and again gets wider and bigger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it leads to the change of making a big sized shroud.

Key words: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Joseon dynasty(조선시대), women's costume(여성복식), characteristics of costume(복식의 특징)

## I. 서론

출토복식이란 수 백년전 조상들의 분묘를 이장할 때 나무로 된 내관(內棺) 속에서 미라 상태나 육탈된 시신과 함께 발굴되는 복식류를 말한다. 당시 기록으로 수의에 해당하는 습의(襲衣), 소림과 대림에 사용된 염의, 보공용 등이다. 출토복식은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발굴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묘주가 생전에 착용하였던 복식류로서 당시의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sup>1)</sup>

1970년대 이후부터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조선시대 분묘의 이장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출토복식 가운데 여성복식은 약 42건이다. 현재 발굴 보고된 출토복식 가운데 생몰년이 정확한 유물은 20건이 안동김씨 김수근 일가는 복식이 섞여서 제외하면 16건으로 38.3%이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여자 출토복식의 시대별 특징을 연구하여, 생몰년을 알 수 없는 경우나 무연고 분묘의 출토복식의 시기감정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연구방법은 2008년까지 발표된 출토복식 관련보고서와 논문을 기초하여 시기감정을 위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여자복식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특징을 각 시대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여성 복식류는 족두리와 너울 등 두식류, 다양한 모양의 저고리와 치마 중심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는 반면 남성복식은 여러 형태의 포제(袍制)중심의 구조를 보여 성별의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포제는 조선 전시기에 착용된 장의, 후기의 원삼, 임진왜란 직후까지 수의용 표의(表衣)로 착용된 단령(團領)이 있다.<sup>2)</sup>

이 연구 대상은 여성단령, 장옷, 원삼, 당의(唐衣)와 저고리, 적삼, 치마와 바지류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복식의 종류와 형태에 한정하기로 한다. 염습제구와 치관제구도 시대별 특징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간단히 언급만 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각 출토복식 보고서에 있는 용어의 불일치, 치수가 알려져 있지 않은 항목 등으로 인해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특히 몰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남편의 몰년과

동시대의 복식과 비교하여 연대를 추정하였지만, 더 많은 발굴과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 복식의 연대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 II. 조선시대 여자복식의 출토현황

2008년 5월 현재 보고된 여성복식 출토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은 박성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sup>3)</sup>으로 보충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박성실의 <표>에 있는 19세기-20세기 안동김씨 김수근 가(家) 복식인 김병학의 정실 파평윤씨(1819-1853), 김병학의 부실 김해허씨(1835-1878), 대사헌 김정규의 부실 한산이씨(1865-1915), 김용진의 자부 여흥민씨(1899-1933)의 복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발굴 당시 피장자별로 구분했으나 보존처리과정에서 구분이 모호하게 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피장자의 신분이나 사망연대에 따라 염습의를 분석할 수 없게 되었다.<sup>4)</sup> 물론 저고리의 경우에는 시대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복식의 종류의 변화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비록 생몰년이 정확하지 않지만 복식의 특징이 뚜렷한 경우에는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 III. 각 시대별 복식의 특징

이 장에서는 각 시대별 출토복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복식의 종류와 수량을 살펴보고, 각 품목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15세기-16세기 초 복식

현재 남자의 출토 복식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조선시대 출토복식은 경기도 광주군 출토 연천군 이담(1379-1431)묘 출토복식과 경기도 양평출토 변수(1447-1524)묘 출토복식이다.<sup>5)</sup> 여자의 출토복식 가운데 15세기 말-16세기 초로 구분된 것은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과 송세훈(宋世勛 1479-1552) 부인 증숙부인 강릉김씨 2건이다.

<표 1> 조선시대 출토 여자복식 현황

번호	세기별	묘주	연대	출토지	소장처	비고 출처
1	단장	? 여성	15세기 추정	인천광역시 남구 석남동(2004)	인천광역시립 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2	단장	송세훈 (1479-1552)의 배위 강릉김씨	1500년대 초 (1520년대) 추정	대전 광역시 (2004)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한국복식 제25호(2007)
3	단장	? 여성	1468-1547년 추정	충남 청양	?	박승원, 충남 청양 안심리 출 토복식의 과학적 보존(2006)
4	단장	파평윤씨	?~1566	경기과주(2002)	고려대박물관	파평윤씨모자 미라종합연구집 (2003)
5	단장	남양홍씨배위 연안김씨	16세기 중반 추정	경기양평(2000)	경기도박물관	연안김씨, 출토복식 조사보고 서(2005)
6	합장	일선문씨	16세기 중반추정	경북안동(1998)	안동대박물관	안동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 태묘 발굴조사보고서(2000)
7	단장	안동김씨	16세기 중반추정	경기광주(196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상장례(1990)
8	합장	의인(宜人) 박씨	16세기 중반 추정	경기 안성(2004)	경기도박물관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2006)
9	합장	최진부인 안동권씨	16세기 후반	경북 문경(2006)	?	이은주, 16세기 후반 전주최 씨 일가 묘 출토복식의 사료 적 가치, 한복문화(2007)
10	단장	청주한씨	16세기 후반 추정	경기과천(1979)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중요민속자료 제114호
11	단장	의인평산신씨	16세기 후반추정	경북문경(2004)	문경새재박물관	금선단차마입고 어디 다녀오 셨을까(2005)
12	합장	정경부인 은진송씨	1509~1580	경기고양(1988)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박성실, 조선전기출토복식연 구(1992)
13	합장	양천허씨	16세기 추정	충남청양(1982)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박성실, 조선전기출토 복식연 구(1992)
14	합장	순천김씨 (채무이 후실)	채무이 (1537~1594)	충북청원(1977)	충북대박물관	김동욱, 고복남, 복식 2호
15	합장	충주박씨	송희최 배위 16세기 후반	대전광역시 (2004)	대전광역시립 박물관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 중 기 여산송씨 출토복식(2007)
16	합장	강절(1542-?) 배위 한산이씨	16세기 후반 추정	대전광역시 (1998)	대전광역시립 박물관	진주강씨 부인 한산이씨, 충 주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 서(2001)
17	단장	강절(1542-?) 배위 충주박씨	16세기 후반 추정	대전광역시 (1998)	대전광역시립 박물관	진주강씨 부인 한산이씨, 충 주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 서(2001)
18	단장	? 여성	16-17세기	광주광역시 (2005)	국가귀속	광주 양산동 회곽묘 출토유물 보존처리(2006)
19	단장	장기정씨	1565~1614	경북포항(1999)	안동대박물관	포항내단리출토 장기정씨보고 서(2000)
20	합장	순흥안씨	송희종 배위 16세기후- 17세기초	대전광역시 (2004)	대전광역시립 박물관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 중 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2007)
21	합장	양천허씨	1566~1626	경기일영(1998)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한국복식 제17호(1999)
22	?	배상경(1575)의 배위 고성남씨	16-17세기	충북 영동(2004)	건국대학교 박물관	충북 영동 성산 배씨 문중 기 증 16·17세기 출토복식(2007)

23	합장	김확 배위 정부인 동래정씨	1567-1631	경기 포천(2001)	경기도박물관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2007)
24	?	숙부인 남양홍씨	1584~1654	경기여주(1987)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한국복식 제8호(1990)
25	합장	정광경 배위 여흥민씨	1586~1656	서울 사당동 (1989)	경기도박물관	동래정씨출토묘 복식조사보고서(2001)
26	?	진주하씨	1580~1652	경북달성(1989)	한국무속박물관	진주하씨묘 출토 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1991)
27	?	구례손씨	변유인 (1566~1641)	충북청원(1979)	충북대박물관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하)(2006)
28	합장	문화유씨	1617~1685	서울 하계동 (1988)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한국복식 제10호(1992)
29	?	전 박장군 부인	17세기 중기	충북 청원(1981)	충북대박물관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하)(2006)
30	단장	해평윤씨	1660~1701	경기과주(2002)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미발표
31	합장	정경부인 전주이씨	김덕원 (1634~1704)	서울 화곡동 (1972)	개인소장	보물 672호
32	합장	양천허씨	한순석 (1637~1704)	경기고양(1992)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한국복식 제11호 (1993)
33	합장	청송심씨	1683-1718	충북 청주(2003)	충북대학교 박물관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복식(2006)
34	합장	군부인 안동권씨	1664~1722	경기하남(1999)	경기도박물관	전주이씨묘 출토복식보고서(2001)
35	단장	파평윤씨	1735~1754	충남예산(2001)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한국복식 제23호(2003)
36	합장	한산이씨	1712-1772	충북 청주(2003)	충북대학교 박물관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복식(2006)
37	합장	전주이씨	1722-1792	충북 청주(2003)	충북대학교 박물관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복식(2006)
38	합장	청연군주	1754~1821	경기광주(1963)	국립중앙박물관/ 단국대/고려대박 물관	석주선 한국복식사
39	합장	파평윤씨	(김병학) 1819~1853	경기화성(1979)	온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1989)
40	단장	김해허씨	(김병국) 1835~1878			
41	합장	한산이씨	(김병국) 1865~1915			
42	단장	여흥민씨	(김순한) 1899~1933			

<표 2> 15-16세기 초반 여성 출토복식

번호	묘주	연대	출토복식류											
			단령	대	장옷	대금형 상의	장 저고리	치마	적삼	말근	바지	소모자	너울	기타
1	석남동 복식	15세기	1	1	2	3	5	6	1	1	5	1	1	장유 1점, 전단후장형 상의1점, 철릭1점, 답호 1점, 수주머니 1점, 버선 3점, 표주박 1쌍, 구슬(염주)
2	강릉김씨	송세훈(1479-1552) 의 배위	1		1	3	5	13	6	-	9	-	-	신 2점, 버선 2점, 행전 외 다수

### 1) 인천 석남동 복식

인천시 석남동 출토복식<sup>6)</sup>은 여성용 단령 1점, 장옷 2점, 대금형 상의 3점, 장저고리 5점, 적삼 1점, 장유 1점, 전단후장형 상의 1점, 철릭 1점, 답호 1점, 치마 6점, 말근 1점, 바지 5점, 소모자 2점, 너울 1점, 수 주머니 1점, 버선 3점, 표주박 1쌍, 구슬(염주) 그리고 그 외 치관제구 등이 수습되었다.

출토복식의 시기 감정은 복식의 형태와 바느질, 특징으로 알 수 있지만 복식의 제작에 사용된 직물로서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인천시 남구 석남동 출토 여자복식의 직물은 “연금사를 사용하여 흥배를 직조한 금선단이 사면(絲綿)교직이 아닌 면마(綿麻)교직물이 사용된 점, 15세기에 많이 사용된 문양의 조형성과 같은 측면으로 인해 15세기 직물의 특성을 보여준다”<sup>7)</sup>

### 2) 강릉김씨 복식

송세훈(宋世勛 1479-1552)의 배위인 강릉김씨<sup>8)</sup>는 후손은 없었고, 38세에 졸(卒)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몰년은 1500년대 초-1520년대 전후로 추정된다. 숙부인(淑夫人)에 증직되었다.

출토된 복식은 포류(袍類)로 단령의 일부 1점, 직령포 일부, 장옷 2점이며, 상의류는 저고리 8점, 적삼 6점, 맞깃 주름형 1점이 있다. 하의류에는 치마 13점으로 흘치마 11점, 솜치마 1점, 겹치마 1점이다. 단속곳<sup>9)</sup>은 9점이 수습되었다.

15-16세기 초기의 복식을 알 수 있는 인천광역시 석남동 출토복식과 강릉김씨 분묘에서 공통으로 수습된 복식은 여성 단령, 장옷, 대금형 상의, 대금형 적삼, 장저고리<sup>10)</sup>, 다투형 치마, 어깨 끈이 달린 단속곳형 바지이다.

① 인천 석남동 출토 단령은 금선 공작흥배가 직성되어 있으며, 강릉김씨의 단령은 일부만 수습되었으나 ‘무’의 모습과 깃나비 등으로 유추하여 불 때 여성 단령이다.

② 이 두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 가운데 특징적인 복식은 ‘대금형상의(對襟形上衣)이다. 장저고리처럼 옆은 트이고 깃은 넓은 목판형 깃이며, 깃 아래 주름이 잡힌 섶이 있는 좌우동형이다. 그 외 숙초(熟縮)

로 만든 깃나비가 좁고 옷길이가 짧은 대금형 적삼도 있다.

③ 저고리는 두 분묘 모두 각 5점의 장저고리형만 수습되었다. 16세기 중반에는 다양한 형태와 길이의 저고리가 등장하나, 이 시기에 장저고리만 입혀졌는지, 아니면 우연히 보공용으로 장저고리만 관에 넣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④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치마이다. 인천 석남동 출토복식 가운데 치마는 총 6점으로 흘치마 2점·겹치마 2점·솜치마 2점이다. 이 가운데 ‘가로 다투(dart)형’ 치마<sup>11)</sup>는 모두 4점으로 흘치마 1점·겹치마 2점·솜치마 1점이며, 치마 앞부분에 가로로 2-3cm내외의 다투가 있다.

강릉김씨 출토복식에서 치마는 13점으로 흘치마 11점, 솜치마 1점, 겹치마 1점이다. 이 가운데 흘치마 7점이 ‘가로 다투형 치마’이다.

두 분묘에서 출토된 ‘가로 다투형 치마’는 16세기 중반에 출토되는 ‘가로 다투형 치마’보다 주름의 깊이가 좁은 것이 특징이며, 흘치마 뿐 만 아니라 솜치마와 겹치마에도 다투를 잡은 것이다.

⑤ 바지 또한 단속곳형이 많다. 인천 석남동 복식은 훼손이 심하여 바지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강릉김씨 바지의 경우는 모두 흘이며 합당고이다. 강릉김씨의 바지는 9점 가운데 7점이 어깨끈이 달려 있었던 흔적이 있다.

## 2. 16세기 중반-16세기 후반

16세기 중후반은 보고된 출토복식이 많은 시기로 청양 안심리 출토복식(1468-1547 사이 생존)의 14건이 있다. 이 가운데 출토복식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있는 11건을 살펴보겠다.

### 1) 청양 안심리 출토복식

충북 청양군 안심리에서 출토된 무연고묘에서 여자복식<sup>12)</sup>이 수습되었다. 피장자에 관한 생몰년은 “내관의 천판을 덮고 있던 만장(輓章)에 있는 인명과 다라니[陀羅尼]에 있는 연호를 기초하여 1468-1547년 사이 생존한 인물로 추정한다.”<sup>13)</sup>

〈표 3〉 16세기 중후반 여성 출토복식

번호	묘주	연대	출토복식류														
			단령	대	장옷	장저고리	저고리	갈깃저고리	당한삼	한삼	적삼	치마			바지류	소모자	기타
												다트형	접음단	일반형			
1	청양 안심리	1468-1547 생존추정	-	-	4	2	1	-	-	-	1	-	1	3	3	-	버선, 습신, 유리구슬, 만장, 삽, 부적인쇄, 만다라 등
2	(고성이씨) 일선문씨	몰년 1550-1560년 대 추정	장삼	1	2	8	2	-	-	3	2	-	1	4	5	1	호로, 실꾸리, 버선 4쌍, 행전, 염주, 약낭, 배개 등
3	파평윤씨	1566몰년	1	1	4	6	13	1	-	-	1	3	-	5	2	-	너울, 토수, 버선, 유소 등
4	(남양홍씨) 연안김씨	16세기 중반 추정	1	1	3	9	6	-	6	-	6	2	1	4	6	-	액주름1점, 흉배 1쌍, 토시 1쌍, 배개 1점, 다라니 1점 등
5	(진주류씨) 의인박씨	16세기 중반 추정	1	1	-	4	4	-	-	-	-	-	1	1	-	1	일부 수습.
6	(최진) 안동권씨	16세기 중반	-	-	2	-	3	-	-	1	1	-	-	-	4	-	중치막, 버선 11, 짚신,
7	평산신씨	16세기 후반	1	1	5	3	6	1	-	-	-	1	1	5	5	1	금선단치마
8	(강절) 한산이씨	16세기 후반	-	-	4	-	1	-	-	1	-	-	-	4	5	-	행전 외
9	(강절) 충주박씨	16세기 후반	-	-	1	-	2	1	-	-	-	-	-	1	3	-	토시 외
10	(송희최) 충주박씨	16세기 후반	1	-	6	1	2	-	-	-	1	-	3	-	5	-	직령, 철리, 액주름, 행전, 표주박
11	(정응두) 은진송씨	1508-1572	-	-	1	4	7	3	-	-	-	-	-	2	1	-	배자

복식은 포류로 장옷 4점, 상의류는 저고리 3점과 적삼 1점, 하의류는 치마 4점, 단속곳 3점, 그 외 염습제구 그리고 기타 유리구슬과 만장 20여점, 다라니 6점, 삽(鬢) 등이 있다. 저고리는 장저고리 2점과 대금형 상의(對襟形 上衣)에서 옆이 막힌 단(短)저고리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듯한 저고리 1점이 있다. 저고리 형태는 강릉김씨의 솜저고리<sup>14)</sup>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치마 4점 가운데 1점은 '접음단 치마'<sup>15)</sup>이며, 단속곳형 바지 3점 가운데 어깨끈이 달려 있던 흔적이 있는 것은 2점이다. 청양 안심리 출토복식에 사용된 옷감은 모두 무명이나 삼베이다.

2) 일선문씨(1550-1560년 몰년 추정) 출토복식

안동대학교 소장 일선문씨의 출토복식<sup>16)</sup>이다. 일

선문씨는 남편인 고성이씨 명정(李命貞: 1504-1565)의 부인으로 몰년은 1550-1560년대로 추정한다. 일선문씨의 묘에서 수습된 복식은 장삼과 대대 각 1점, 장옷 4점, 장저고리 12점, 단저고리 1점, 치마 5점, 한삼 3점, 적삼 2점, 합당고 3점, 개당고 2점, 그 외 부채, 소낭, 염주, 약낭, 행전, 소모자, 실꾸리, 호로 등이 있다.

일선문씨 복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장삼이 수습된 점이다. 저고리는 장저고리 8점과 단저고리 1점이 수습되었다. 특히 단저고리는 완전 들어앉은 목판깃으로 좌우대칭형이다. 이와 같은 저고리는 앞에서도 언급한 강릉김씨와 청양 출토복식과 같은 유형이다. 적삼과 한삼에서 쏠이 달리지 않은 것, 겨드랑이에는 '비대칭형 큰 삼각무'가 달린 형태<sup>17)</sup>도 3점이나 있다. 치마 5점 가운데 1점은 '접음단 치마'이며, 바지 5점

가운데 홀바지 2점은 어깨끈이 달렸던 흔적이 있다. 개당고 2점은 뒤트임이다.

### 3) 파평윤씨 묘 출토복식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이며 파평윤씨의 복식<sup>18)</sup>으로, 바지끈에 있는 명문으로 1566년을 파평윤씨의 몰년으로 추측한다. 파평윤씨의 복식은 여성용 단령 1점, 장옷 5점, 저고리류 21점, 바지류 2점, 치마류 8점, 너울 1점, 토수 1쌍 기타 염습제구가 수습되었다.

파평윤씨의 포류로는 단령과 장옷이 있다. 단령에는 노사홍배가 달려있다. 장옷은 모두 5점이 수습되었다. 솜 4점과 누비 1점이다. 태수가 달린 것은 4점으로 길과 다른 색상을 사용하였다. 저고리류는 모두 21점으로, 옆트임이 있으며 깃이 좁은 홀 당적삼 1점, 장저고리 6점, 옆트임이 있는 저고리 1점, 옆트임이 없는 저고리 1점, 단저고리 11점과 이중(二重) 칼깃 저고리 1점이 있다. 치마류는 8점으로 홀 3점, 겹 3점, 누비 1점, 솜치마 1점이 수습되었다. 이 가운데 양쪽 삼각형 다트가 있는 치마는 홀치마 3점이다.

파평윤씨 복식의 특징은 다양한 길이의 저고리가 나타나며, 피장자가 임신부임을 감안하여 저고리에 현대식 다아트(dart)를 잡은 것도 있다. 치마에서 15-16세기 전반과 다른, 다트형 치마가 보인다. 파평윤씨의 '가로 다아트(dart)형 치마는 앞 중심 2폭은 짧으며, 다트가 있는 치마의 폭은 다트의 깊이를 9-14cm로 깊게 잡아 앞 중심과 양끝의 치마길이가 다른, 트레인(train)을 단 효과가 있다.<sup>19)</sup> 이 외에도 너울과 너울 장식 유소 등이 수습된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금선단 저고리 등 화려한 문단이 많이 사용되었다.

### 4) 남양홍씨 배위 연안김씨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소장으로 연안김씨 복식<sup>20)</sup>이며, 남양홍씨 가문의 이장시 수습되었다. 연안김씨의 몰년은 16세기 중반으로 추정한다.<sup>21)</sup> 저고리의 형태와 옷감 등은 고려대학교 소장 파평윤씨와 유사하며, 쇠이 없고 비대칭 삼각무가 달린 적삼의 형태는 일선문씨의 적삼과 비슷하다.

연안김씨의 출토복식은 금선단 공작 홍배가 부착

된 여성단령과 대대 각 1점, 장옷 3점, 적삼류 3종 8점, 저고리류 3종 15점, 치마 3종 5점, 바지 2종 6점, 액주름 1점, 그 외 홍배 1쌍, 토시 1쌍, 자수베개 1점, 다라니 2점 등이 있다.

연안김씨 복식의 특징은 다양한 상의류 속옷에 있다. 솜에 사용된 홀, 겹의 주(紬) 적삼, 당한삼 그리고 쇠이 없는 삼배 적삼, 좁고 넓은 깃나비의 적삼이 있다. 장옷은 이색(異色)의 태수가 달려있다. 또한 단저고리의 '무'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치마는 홀치마 2점이 '가로 다트형 치마'<sup>22)</sup>이나 형태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파평윤씨 홀치마와는 형태가 다르다. 솜치마 1점은 '접음단 치마'이다. 바지 가운데 단속곳형 2점에는 어깨끈의 흔적이 있다.

### 5) 진주류씨 배위 의인(宜人) 박씨(16세기 중반)

경기도박물관 소장 의인 박씨의 복식<sup>23)</sup>으로, 남편과 부인 모두 생몰년을 알 수 없다. 남편인 진주류씨의 생몰년은 알 수 없으며, 명정에 '內禁衛定略將軍行忠武衛副司果柳公之柩', 배위인 박씨의 명정에는 '宜人朴氏之柩'라고 기록되어 있다.

의인박씨의 출토복식은 여성 단령과 단령 대대 1점, 저고리 8점, 치마 2점, 소매 9점, 떡목 1점, 소모자 1점, 그 외 염습제구 등이 있다. 이 복식들은 일부만 수습되었다.

의인박씨 복식의 특징은 금선단 직금(織金) 호표(虎豹) 홍배가 부착되어 있는 여성단령이다. 호표홍배가 연대를 추측하는 단서가 된다. 저고리는 모두 목관깃으로 장저고리 4점, 단저고리 4점이 있다. 치마 1점은 운문단 솜치마로 '접음단 치마'이다.

### 6) 최진(崔縝) 부인 안동권씨

몰년이 16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최진의 부인 안동권씨 출토복식<sup>24)</sup>은 총34점으로, 중치마 1점, 장옷 2점, 적삼 1점, 저고리 3점, 한삼 1점, 치마 1점, 개당고 1점, 합당고 1점, 여모 1점, 버선 11쌍, 짚신 1쌍 등이 있다.

안동권씨 복식의 특징은 여모(女帽)에 있다. 이 여모는 소모자와 족두리의 중간형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족두리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복

식사적인 의미가 있다. 중치막 또한 처음 확인되는 16세기의 유물이다.

### 7) 평산신씨(16세기 후반) 출토복식

문경새재 박물관 소장 평산신씨 복식<sup>25)</sup>으로 여성 단령과 대대 각1점, 장옷 5점, 저고리 9점, 치마 7점, 바지 5점, 소모자 1점 등이 있다. 평산신씨 복식의 특징은 치마 전체가 금선단으로 된 복식이 수습된 것이다. 그 외 '접음단 치마'도 있으며, 바지 가운데 어깨끈이 달린 합당고도 있다. 저고리는 목판깃이며 회장저고리 4점, 당저고리 2점, 장저고리 1점, 칼깃저고리 1점이 있다.

### 8) 강절(姜節 1542-미상)의 부인 한산이씨와 충주박씨

대전시 대덕구 용호동 출토복식<sup>26)</sup>으로 족보에 의하면 강절은 1542년 생으로 몰년은 미상이지만, 조선 왕조실록에 광해군 2년(1609)에 통정(通政)에 가자(加資)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산이씨가 강절의 초배(初配)이고 충주박씨가 후배(後配)이다. 이 두 분 묘에서 출토된 복식은 모두 무명·삼베·모시이며, 복식도 매우 간소하다. 한산이씨의 복식은 장옷 4점, 저고리 4점, 속곳 4점, 치마 4점, 행전 1쌍과 그 외 염습제구가 있다. 한산이씨의 저고리는 목판깃이다. 한산이씨의 저고리 가운데 습의로 사용된 1점은 모시로 홑 저고리로 길이 76cm이고 옆이 트인 형태이다.

충주박씨의 복식은 무명장옷 1점, 저고리 2점, 속곳 1점, 솜바지 1점, 솜치마 1점, 토시 1쌍 등이다. 저고리 2점 가운데 1점은 칼깃이다.

### 9) 여산송씨 가(家) 충주박씨(16세기 후반)

대전시 대덕구 목달동 출토 송효상(1430-1490)의 증손자인 송희취의 부인인 충주박씨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이다.<sup>27)</sup>

직령 1점, 철릭 1점, 액주름 1점, 장옷 5점, 저고리(적삼) 1점, 저고리 2점, 당저고리 1점, 치마 6점, 바지 5점, 여모(소모자), 행전 등이 있다.

충주박씨 출토복식의 특징은 홑으로 만든 무명 저고리(적삼)은 '비대칭형 무'가 있고, 안섶은 없는 형

태이다. 이와 비슷한 적삼이 16세기 중후반의 출토복식인 안동대 박물관 소장 일선문씨 복식과 경기도박물관 소장 남양홍씨 배위 연안김씨 복식에서 나타난다. 치마는 6점 가운데 3점이 '접음단치마'이다. 바지 5점 가운데 1점이 어깨끈이 있는 바지이며, 단속곳형이 3점, 2점은 개당고형이다. 복식의 형태로 보아 일선문씨의 복식과 유사하며, 보공으로 사용된 직령과 철릭, 액주름의 형태를 참고하면 충주박씨의 생몰년은 16세기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 10) 정응두 부인 은진송씨(1509-1580)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정응두(丁應斗:1508-1572) 부인 은진송씨의 출토복식이다.<sup>28)</sup> 부부합장묘에서 수습된 유물로 장옷 1점, 저고리류 15점, 배자류 1점, 치마 2점, 솜바지 1점 등이 있다.

은진송씨의 유물은 다양한 형태의 저고리에 있다고 하겠다. 저고리 길이에 따라 45-62cm, 63-71cm, 76-82cm 3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sup>29)</sup> 옆이 트인 장저고리형은 4점이다. 솜바지의 형태도 특징이 있다.

16세기 중반~후반복식은 몰년이 1566년 파평윤씨, 정응두 부인 은진송씨(1509-1580)를 비롯하여 10여 건이 보고되었다. 파평윤씨와 은진송씨 복식을 제외하면 모두 남편의 생몰년을 참고하여, 연대가 확실한 복식의 형태와 비교하여 추정된 것이다. 이렇듯 생몰년이 뚜렷한 복식은 복식의 년대 추정과 감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① 16세기의 여자복식의 특징은 예복으로 여성 단령이 사용된 것이다. 여성 단령은 나비 2.5cm의 좁은 깃나비, 화장이 짧은 직배래 소매, 다중 접음무의 모양 등이 동시대 남자 단령과 구별된다.<sup>30)31)32)</sup>

② 그 외 여성이 착용한 포류(袍類)에는 장옷이 있다. 16세기의 장옷은 소매 끝에는 이색(異色)의 끝동에 해당하는 태수(苔袖)<sup>33)</sup>가 달려있다. 또한 홑장옷·겹장옷·솜장옷·누비장옷의 다양한 구성법이 보인다. 저고리는 목판깃과 칼깃저고리<sup>34)</sup>가 있다.

③ 저고리는 길이에 따라 옆이 트인 장저고리, 옆이 막힌 저고리, 옆이 막히고 길이가 짧은 단저고리 3종류가 있다. 안깃은 목판깃이지만 깃의 앞힘은 여러 종류이다. 저고리의 결마기에 해당하는 '무'의 형



<표 4> 17세기 여성 출토복식

번호	묘주	연대	출토복식류																
			단령	원삼	대	장옷	장저고리	당의	저고리	칼깃저고리	당한삼	한삼	적삼	치마			바지류	소모자	기타
														다트형	접음단	일반형			
1	광주 양산동	16-17세기	-	-	-	2	-	1	3	-	-	-	-	1	2	3	-	서책, 부채, 동경, 얼레빗	
2	장기정씨	1565-1614	1	-	1	6	3	6	2	-	-	1	-	3	4	3	-	도포2, 중치막2	
3	(송희종) 순흥안씨	16-17세기	1	-	-	3	-	4	8	7	1	-	-	-	3	4	1	직령, (족두리), 표주박	
4	(배상경) 고성남씨	배상경 (1575)	-	-	-	4	-	3	3	-	-	1	-	-	4	3	-	-	
5	양천허씨	1566-1626	-	-	-	5	-	4	-	-	-	1	-	-	-	3	1	배자1, 중치막1	
6	(김확) 동래정씨	1567-1631	-	1	1	7	-	2	14	2	-	1	-	-	10	3	-		
7	(곽주) 진주하씨	1580-1652	-	-	-	4	-	-	2	-	-	-	7	-	2	14	1	창의 1, 버선 18, 빗집과 틀	
8	(정양우) 남양홍씨	1584-1654	-	-	-	6	-	-	6	1	1	-	-	-	4	2	-	소창의1	
9	(정광경) 여흥민씨	1586-1656	-	-	-	11	-	-	10	-	-	-	2	-	6	2	-	습의제외	
10	(이지원) 문화유씨	1617-1685	-	-	-	2	-	-	6	-	-	-	-	-	4	1	-	모발	

태도 다양하다. 적삼은 '비대칭형 무'가 달린 것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적삼이 있는 것도 16세기의 특징이다.

④ 치마는 금선단치마와 금선단 슬란(膝襪)치마가 있으며, 15-16세기 초반에 보였던 다트형 치마의 다트의 접힘이 훨씬 더 깊어졌다. 그 외 치마의 하단부를 접어 치마를 2겹 입은 듯 보이는 '접음단치마'도 있다.

⑤ 바지는 개당고와 합당고가 있는데, 어깨끈이 있는 바지도 계속 착용된 것 같다.

⑥ 그 외 소모자와 만다라·토수·행전·표주박·염주 등이 염습제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남자의 액주름, 철릭, 중치막이 보공용 수의(褌衣)로 사용되었다. 솜옷과 겹옷에는 저주지를 사용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 3. 17세기 복식

이 시기의 복식 12건 가운데 생몰년이 확실한 복식이 6건이 있어, 복식의 시기 감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 1) 광주 양산동 출토복식(16-17세기 추정)

광주광역시 양산동 무연고 묘의 출토복식<sup>35)</sup>으로 복식과 직물의 형태로 16세기 후반-17세기 초로 추정하였다. 장옷 2점, 저고리 4점, 치마 3점, 바지 3점, 그 외 염습제구와 서책(書冊), 부채, 동경(銅鏡), 얼레빗, 참빗 등이 수습되었다.

광주 양산동 출토복식의 특징은 염습의와 보공에 사용된 복식의 수량이 적고, 사용된 직물이 모두 면마 직물인 것이 특징이다. 대렴금에 사용된 직물은 '헝커백(huckerback)' 조직으로 16세기 중반으로 추

정되는 최진(崔縝)의 부인 안동권씨의 떡목에 사용된 직물과 동일한 조직이다.<sup>36)</sup> 저고리는 4점은 모두 70cm 내외이며, 3점은 칼깃, 1점은 목판깃 저고리이다. 치마 3점 가운데 1점은 '접음단 치마'이고, 바지 3점 가운데 개당고 1점에는 어깨끈이 달려있었던 흔적이 있다.

## 2) 기자헌의 부실(副室) 장기정씨(1565-1614년)

영의정 기자헌(奇自獻: 1562-1624)의 부실인 장기정씨 묘의 출토복식<sup>37)</sup>이다. 여성단령 1점, 장옷 6점, 적삼 1점, 단저고리 1점, 저고리 4점, 장저고리 3점, 치마 7점, 바지 4점, 도포 2점, 중치막 2점, 칼깃형 저고리 2점 등이 수습되었다.

장기정씨 복식의 특징은 공작홍배를 부착한 여자 단령이다. 16세기의 여자단령에 비해 한삼이 달려있어 화장이 길어졌다. 장옷은 소매에 소색(素色)의 태수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저고리는 모두 목판깃이며, 칼깃형 저고리도 2점이 있다. 치마는 '접음단 치마'가 3점이 있다.

## 3) 송희종의 배위 순흥안씨(16세기 후반-17세기 초)

대전시 목달동에서 출토된 순흥안씨<sup>38)</sup>의 묘에서 나온 복식은 여성단령 1점, 장옷 3점, 저고리 12점, 치마 3점, 바지 4점, 소모자 1점, 직령 1점, 기타 염습제구와 주머니 1점, 표주박 1점 등이 있다.

순흥안씨 복식의 특징은 홍배가 없는 여성 단령과 거들지<sup>39)</sup>가 있는 장옷 1점이 있다. 저고리 3점은 칼깃형이고 바지 1점에는 어깨끈이 있다. 그 외도 소모자라고 보고서에 밝힌 족두리도 있다.

## 4) 배상경의 배위 고성남씨

건국대학교 소장으로 충북 영동 성산배씨 문중의 출토복식이다.<sup>40)</sup> 배상경은 1575년에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생몰년은 알 수 없다. 배상경의 배위인 고성남씨의 복식은 무명 종류가 많지만, 장옷과 저고리, 치마에는 문단류가 사용되었다. 장옷 4점, 중치막 1점, 저고리 7점, 적삼 1점, 치마 4점, 바지 3점이 수습되었다.

고성남씨 복식의 특징은 장옷 3점에 거들지가 있

는 점이다. 저고리 3점은 목판깃이며, 1점은 당코깃, 3점은 칼깃이다. 치마 1점은 홑으로 된 덧치마와 솜치마를 함께 입었다. 바지 1점은 어깨끈이 달려있다.

## 5) 양천허씨(1566-1626)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신언식(申彦滉: 1519-1582)의 배위인 양천허씨의 복식<sup>41)</sup>은 장옷 5점, 저고리류 4점, 적삼 3점, 배자 1점, 바지류 3점, 중치막 1점, 모 1점, 달비 등이 수습되었다.

양천허씨의 복식의 특징은 보고서에 실측도가 제시된 장옷 2점에는 태수가 달려있고, 1점은 겨드랑이에 삼각무가 없으며, 좌우대칭이 아닌 두루마기에 가까운 옷이다. 저고리 가운데 1점은 깎은 당코깃이다. 모(帽)는 솜을 둔 육합일통모의 소모자로 끈이 달려 있다.

신분과 생몰년이 확실한 분묘 가운데 당코깃<sup>42)</sup>이 처음으로 확인된다.

## 6) 김확의 배위 동래정씨(1567-1631)

경기도박물관 소장 경기도 포천 출토 김확(1572-1633) 합장묘 출토복식이다.<sup>43)</sup> 김확의 배위인 동래정씨의 복식은 이장이 끝난 후 유물을 인수받아 정확한 염습의를 알 수 없다. 동래정씨 묘의 복식으로 구분한 여자 복식은 원삼 1점, 당의 2점, 장옷 7점, 저고리 16점, 한삼 1점, 치마 10점, 바지 3점, 그 외 염습제구 등이 있다.

동래정씨 복식의 특징은 거들지가 있는 목판깃 당의 2점과 원삼이다. 원삼은 깃모양이 비교적 둥근 모양으로 여자 단령에서 원삼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당의(唐衣)는 목판깃에 수구에는 거들지가 달려있다. 치수와 형태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장 중요민속자료 제215호 광해군비(光海君妃) 당의<sup>44)</sup>와 거의 비슷하다. 장옷은 누비 장옷 1점을 제외하고 모두 거들지가 달려있다. 저고리는 목판깃이 6점, 당코깃이 8점, 칼깃이 2점이 있다. 동래정씨 몰년에는 목판깃과 당코깃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고리에도 깃의 형태에 상관없이 거들지가 사용되었다. 치마는 더 이상 16세기에 있었던 '가로다트형 치마'나 '접음단 치마'가 보이지 않는다. 바지

1점에 어깨끈이 달려 있었던 흔적이 있다.

### 7) 진주하씨(1580-1652)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유명한 망우당(忘憂堂)곽재우(郭再祐)의 종질(從姪)인 곽주(郭澍)의 재실(再室) 진주하씨<sup>45)</sup> <sup>46)</sup>의 묘에서 많은 서간류(書簡類)와 복식들이 수습되었다. 장옷 4점, 저고리류 9점, 치마 2점, 속곳 14점, 바지 3점, 버선 18점, 소창의 1점, 그 외 염습제구, 모자, 돛자리, 빗집과 틀 등이 있다.

진주하씨 복식의 특징은 모두 무명이나 삼베 · 모시로 만든 것이다. 저고리류는 모두 목판깃이고 안깃은 '완전 들어 달린 형'<sup>47)</sup>이다. 다량의 버선이 수습된 것은 드문 경우이다.

### 8) 정양우(鄭良佑:1574-1647)의 배위, 남양홍씨(1584-165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소장 남양홍씨의 출토복식<sup>48)</sup>은 장옷 7점, 저고리 7점, 치마 3점, 바지 2점, 소창의와 그 외의 염습제구 등이 있다. 남양홍씨의 장옷 가운데 수구는 태수형이 2점이며 1점은 소매가 파손되어 알 수 없다. 저고리는 '칼깃형 누비 저고리' 1점을 제외하면 모두 당코깃이다. 바지 2점도 누비 개당고이다.

### 9) 정광경의 배위 여흥민씨(1586-1656)

경기도 박물관 소장 동래정씨 광경(鄭廣慶: 1586-1644)의 배위 정부인 여흥민씨의 출토복식<sup>49)</sup>은 습의(襲衣)를 제외한 장옷 11점, 저고리 10점, 치마 6점, 적삼 2점, 바지 2점, 너울, 현훈 10점, 구의 등이 수습되었다.

여흥민씨 복식의 특징은 다수의 장옷이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장옷의 수구는 모두 거들지형으로, 이전 시기에 이색(異色)의 태수와 거들지가 혼용된 것에 비교된다. 저고리도 모두 당코깃으로 변화였고, 저고리의 옆은 모두 막히고 저고리 길이도 46-58cm 한가지로 통일되었으며, 겨드랑이 무(견마기)의 형태도 16세기에 보이던 사다리꼴과 삼각형이 합쳐진 듯한 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바지는 단속곳형태로 2점

모두 어깨끈이 있는 누비바지이다. 여흥민씨 출토복식의 또 다른 특징은 누비가 많이 사용된 점이다.

### 10) 이지원 배위, 문화유씨(1617-1685)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문화유씨의 복식<sup>50)</sup>은 장옷 2점, 저고리 6점, 치마 4점, 바지 1점이 수습되었다.

저고리 6점은 모두 당코깃이며, 바지는 단속곳형의 너른 솜바지로 바지통이 74cm이다.

17세기의 복식은 16세기에 비해 복식은 품은 좁아져서 상대적으로 긴 느낌을 준다.

① 여자단령은 장기정씨(1565-1614)와 송효상의 손부 순흥안씨(16세기 후반-17세기 초)의 복식에서 보인다. 김확의 배위 정부인 동래정씨(1567-1631)의 복식에는 원삼의 고정(固形)<sup>51)</sup>이 나타난다.

② 2벌 겨입은 당의(唐衣)도 나타난다. 동래정씨(1567-1631)의 복식에서 보이는 목판깃의 옆이 트인 길이 73-75cm의 저고리를 당의로 생각한다.

③ 양천허씨(1566~1626)의 저고리에서 깎은 당코깃이 처음 나오고, 동래정씨 몰년에는 저고리의 깃은 목판깃과 당코깃이 혼재되어 있으나, 정광경 배위 정부인 여흥민씨(1586-1656)의 출토복식에는 저고리가 모두 '당코깃'으로 바뀐다. 저고리의 형태 또한 옆이 모두 막힌 짧은 길이의 저고리로 바뀐다.

④ 17세기의 장옷의 수구는 태수형도 있으나 거들지형으로 바뀐다.

⑤ 바지는 16세기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며, 여흥민씨 몰년인 1656년까지 어깨끈이 있는 단속곳형 바지가 출토된다.

⑥ 족두리의 전신인 7쪽을 이어 붙인 모(帽)가 출토되기도 한다.

## 4. 18세기 복식

18세기의 출토복식은 김원택 배위 청송심씨(1683-1718)<sup>52)</sup>, 의원군(義源君) 배위 군부인(郡夫人) 안동권씨(1722 추정), 파평윤씨(1735-1754), 김원택 가(家) 한산이씨(1712-1772), 김원택 가(家) 전주이씨(1722-1792)의 복식이 있다.

〈표 5〉 18세기 여성 출토복식

번호	묘주	연대	출토복식류													
			원삼	대	장옷	당의	저고리	적삼	배자	치마			바지류	족두리	토시	기타
										다트 형	접음단	일반 형				
1	(김원택) 청송심씨	1683-1871	1	1	3	5	12	?	?	-	-	2	2	?	1	과두1, (일부 발표)
2	(의원군) 안동권씨	1664-1722 추정	1	1	3	1	16	1	-	-	-	5	3	1	-	과두1
3	파평윤씨	1735-1754	-	-	-	-	5	-	1	-	-	-	2	-	-	허리말기 5
4	한산이씨	1712-1772	1	1	?	?	13	?	1	-	-	?	?	?	?	?(일부 발표)
5	(김상직) 전주이씨	1722-1792	1	1	1(?)	1(?)	5(?)	-	-	-	-	1	1(?)	-	1	?(일부 발표).

1) 김원택(金元澤:1683-1766) 배위 청송심씨(1683-1718)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김원택 배위 청송심씨의 출토복식<sup>53)</sup>은 원삼 1점, 장옷 3점, 당의 5점, 저고리 12점, 치마 2점, 합당고 2점, 과두 1점, 토시 1쌍, 습신 등이 있다.

청송심씨 복식의 특징은 금사로 '壽'를 수놓은 흉배가 달린 원삼, 거들지가 달린 장옷, 봉황흉배가 달린 당의 등이 수습된 것이다. 저고리의 깃은 당코깃이며, 저고리를 2벌씩 겨놓은 채 수습된 것도 있다.

2) 의원군(義源君) 배위 군부인(郡夫人) 안동권씨(1664-1722추정) 복식

경기도박물관 소장 왕실종친인 의원군(義源君) 이혁(李赫)의 배위인 안동권씨의 출토복식<sup>54)</sup>은 소삼(小衫) 1점, 저고리 16점, 당의(唐衣) 1점, 원삼(圓衫) 1점, 장옷 2점, 배자 3점, 치마 5점, 과두 1점, 족두리, 여모(女帽)와 그 외 염습제구 등이 있다. 안동권씨 출토복식의 특징은 소삼에서 부터 저고리 삼작, 당의, 원삼의 순서로 습의가 수습되어 문헌에 있는 습의의 순서를 알 수 있었다. 치마는 솜치마 위에 예복용 위치마 1벌을 겨입은 것도 밝혀졌다. 장옷과 원삼의 수구는 저주지를 넣은 거들지 형태이다. 저고리 2벌이 끼워진 상태도 수습되었다. 저고리의 품도 점차 좁아지고, 걸쭉선이 앞중심에서 옆쪽으로 2-3cm 이동되었으며, 대부분의 저고리는 수구에 끝동이 달려있다. 또한 저고리 수구 안쪽에 오염을 방지하는

5-10cm의 옷감이 덧대어 있다. 솜옷은 솜을 매우 얇게 둔 것도 특징이다.

3) 파평윤씨(1735-1754)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파평윤씨의 출토복식<sup>55)</sup>에는 배자 1점, 저고리 5점, 단속곳 1점, 허리 말기 6점, 치마 6점, 개당고 1점, 단속곳 1점, 그 외 다수의 옷감과 염습제구들이 있다.

파평윤씨 복식의 특징은 18세기 초반에 비해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파평윤씨가 20살의 어린나이인 이유도 있지만, 백담사 불복장품(1748년)의 저고리<sup>56)</sup>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고리의 깃은 당코깃이다.

4) 김원택 가(家) 한산이씨(1712-1772)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김원택(金元澤: 1683-1766)의 며느리인 한산이씨의 복식<sup>57)</sup>은 원삼 1점, 장옷 1점, 저고리 13점, 배자 1점, 습신, 오냥 등이 있다.

한산이씨 복식의 특징은 습의(襲衣)로 사용된 복식의 크기가 크다는 것이다. 저고리 깃의 모양은 당코깃이다.

5) 김원택 가(家) 전주이씨(1722-1792)의 복식

김원택(金元澤:1683-1766)의 셋째 아들 김상직(金相直:1716-1803)의 부인인 전주이씨의 출토복식<sup>58)</sup>은 원삼 1점, 당의 1점, 장옷 1점, 저고리 5점, 개당고 1

<표 6> 조선시대 여성 출토복식의 종류와 출현 시기

연대	1500년 이전	1525년	1550년	1575년	1600년	1625년	1650년	1675년	1700년	1725년	1750년	1775년	1800년
여성 단령													
장옷													
장저고리													
당의													
원삼													
대금형 상의													
목관깃저고리													
당코깃 저고리													
칼깃형 저고리													
적삼·한삼													
치마	다트형												
	접음단												
	일반형												
	홀웃치마												
어깨끈 달린 바지													
소모자													
족두리													
너울													
행전													
토시													

점, 겹치마 1점, 토시 1쌍, 습신 등이 있다.

전주이씨 복식의 특징은 습의에 저고리 삼작을 끼입은 형태와 장옷 위에 당의를 겹쳐 입은 상태로 수습된 것이다. 보공용으로 사용된 저고리 길이의 편차는 10cm 정도이다.

18세기의 복식은 5건이 보고되었다.

① 이 시기에는 여성 예복이 원삼과 당의(唐衣)가 착용되었다. 장옷도 계속 착용된다.

② 18세기 중반 이후에 옷의 품이 좁아지나, 김원택 가(家)의 며느리인 한산이씨(1712-1772)와 전주이씨(1722-1792) 몰년인 18세기 후반에는 염습용 습의(襲衣)를 치수가 큰 옷이 사용되어 습의용으로 새 옷을 만든 경우도 있다. 또한 전주이씨의 습의는 장옷 위에 당의를 입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③ 저고리는 당코깃이며, 2벌을 끼입기도 한다.

④ 18세기에는 어깨끈이 있는 단속곳[합당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과두(裹肚)도 여성 습의에서 나타난다.

이상에서 15세기로 추정되는 복식부터 18세기 후

반까지 출토복식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 IV. 결론

15~18세기 후반 출토복식의 현황과 시대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5-16세기를 대표하는 여성예복은 여자단령이다. 여자 단령은 1614년 장기정씨 복식을 끝으로 보이고, 1631년 동래정씨의 포류(袍類)에서는 단령에서 원삼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 원삼 형태 가운데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유물이다. 그 이후 1690년대 묘에서는 원삼이 등장한다.

2. 장옷은 조선시대 15~16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기본 구조의 변화는 없으나, 품이라든지 길이의 변화가 있다. 장옷 수구의 변화도 시대 구분이 가능한 요소이다. 장기정씨(1614)의 장옷의 수구는 소색태수가 달려있고, 김확 배위 동래정씨(1631)의 장옷은 접음형[turnback cuffs] 거들지형태이고, 의원군 배위 안동권씨(1722) 장옷의 수구는 저주지를 넣고

안감에서 연결한 거들지형이다.

3. 당의(唐衣)는 조선전기의 옆이 트인 장저고리 형에서 발전한 것이라 생각된다. 김확 배위 동래정씨(1631)의 습의로 사용된 2벌을 함께 입은 목판깃의 옆이 트인 장저고리를 당의의 초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동래정씨 묘에서 출토된 목판깃 저고리는 길이가 50-64cm로 짧아졌고 모두 옆이 막혀있기 때문이며, 당의에는 거들지가 달려 있다.

4. 16세기 전반(1520년대 이전)의 관에서는 장저고리만 수습되었는데 우연이 일치인지 알 수 없다. 옆이 막힌 저고리는 대금형(對襟形) 목판깃 저고리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저고리가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장기정씨(1614) 복식이다. 그 이후에는 옆이 막힌 60cm 길이의 저고리로 변화된다. 당코깃 저고리가 처음 나오는 것은 신언식의 배위 양천허씨(1566~1626)의 복식이다. 김확의 배위 동래정씨(1631)의 저고리는 목판깃 저고리가 6점, 당코깃이 8점으로 혼재되어 있으나, 정응두의 배위 남양홍씨(1584~1654)와 여흥민씨(1656)의 저고리는 모두 당코깃이다.

칼깃형 저고리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남자저고리로 인식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연구에 의하면 17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남자의 저고리와 16-17세기의 칼깃형 저고리는 구조와 형태 그리고 치수에 있어서 구별되어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많은 복식의 품목 가운데 저고리는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틀어 출토되며, 시대별 특징도 뚜렷하다. 이 연구에서는 깃의 형태와 같은 제한적인 연구만 행해졌지만 앞으로 저고리의 싹·깃·견마기·끝동 등의 치수와 형태 변화를 살피면, 좀 더 구체적인 시기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가 진행 중이다.

5. 치마는 파평윤씨(1556년)까지 앞이 접힌 '가로다트(dart)형 치마'가 있다. '가로다트형 치마'도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접음단 치마'는 1550년대부터 나타나서 장기정씨(1614)의 복식에서 보여 16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양식임을 알 수 있다.

7. 바지는 단속곳[합당고]형과 개당고형이 있다. 시대 양식이 잘 나타나는 것은 어깨끈이 달린 바지이다. 어깨끈이 달린 바지는 15~16세기부터 시작되

어, 정광경 배위 여흥민씨(1656)의 복식까지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무연고묘 또는 생몰년이 불확실한 묘에서 출토되는 복식들을 시대감정의 기준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그것은 첫째, 15~16세기의 경우 절대 연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생몰년이 명확한 복식이 많지 않다. 학계에서 기 발표된 연대는 배우자의 생몰년의 참고하고 복식의 특징을 고려하여 크게 '중후반' 같은 형식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복식의 경우에도 유행은 약 20년~25년 단위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또한 생몰년 불확실 묘나 무연고 묘인 경우에는 기존의 복식의 시대 분류에 적용시켜, 대략적인 시기 감정의 카테고리 속에 속하는 복식의 군(群)을 더 키운 결과도 초래하는 것 같다.

복식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18세기 중 후반 역시 15-16세기 복식처럼 생몰년이 명확한 복식이 많지 않아 연구자료의 부족으로 감정의 기준으로 제시할 결과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특징 또한, 앞으로 발표되는 자료에 따라 보충하여 변화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복식의 종류의 출몰시기를 기본으로 연구했지만, 품목별로 치수와 형태 변화를 구체화하는 연구 작업이 수행된다면 훨씬 더 정확한 시대 감정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복식에 적용되는 바느질법과 구성법, 즉 홑옷·솜옷·겹옷·누비옷의 출현 빈도와 저주지와 솜의 사용, 옷감의 두께도 시대 감정의 요소로 가늠하나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셋째, 시대에 따라 복식에 사용된 직물도 연대 감정의 대상에서 큰 역할을 한다. 앞에서 살펴보면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로 분류된 출토복식에는 무명이나 삼베 그리고 모시가 복식의 재료로 사용된 분묘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지방에서 출토된 복식이다. 이들 복식의 연대가 정확하게 규명되면 임진왜란 이후 한때 경제사정 때문인지, 신분 때문인지도 밝혀질 것이다.

넷째, 각 연구자마다 다른 복식의 명칭과 용어에 따른 혼돈에 따른 오류가 일어 날 수 있다. 각 시대와 특징에 맞는 복식의 명칭을 문헌에서 찾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하며,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자의 관(棺)에 보공으로 사용된 수의(綵衣)로 사용된 남자의 포류(袍類)도 여성복식의 시대 감정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복식은 무연고묘나 생몰년이 확실하지 않는 분묘의 연대추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만, 함께 수습된 관(棺)에 사용된 관재(棺材), 관의 형태, 만사(輓詞) 등, 치관제구(治棺諸具)와 보공으로 넣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함께 연구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학제간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박성실 (2006). 출토복식을 통해 보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옷맵시.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서울: 서울역사박물관·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 182.
- 위의 책, pp. 182-184.
- 위의 책, pp. 183-184.
- 유희경 외 (1989).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 온양: 온양민속박물관, p. 38.
- 권영숙 외 (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대전: 대전광역시,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p. 4.
- 김미자 외 (200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위의 책, pp. 80-104.
- 고부자 (2007). 大田 出土 江陵 金氏(女, 朝鮮 前期) 遺物. 韓國服飾, 25, pp. 23-90.
- 바지의 명칭은 현재 단속곳으로 지칭되는 밑이 막힌 합당고(合襠袴)와 밑이 트여있는 다양한 형태의 바지인 개당고(開襠袴)가 있다. 이글에서는 보고서에 지칭되어 있는 용어 그대로, 단속곳과 합당고를 혼용하고, 밑이 트인 바지는 개당고로 표기하기로 한다.
- 조선시대 전·중기의 저고리 명칭을 박성실은 학위논문(조선전기 출토복식 연구:1992)에서 저고리의 길이에 따라 3종류로 나누었다. 그 연구 이후에 장저고리, 중저고리, 단저고리라는 명칭으로 분류되어 통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조선시대 전·중기에 착용되었던 목판깃의 옆이 트인 저고리 길이 80cm 내외의 저고리를 장저고리라 칭하기로 한다.
-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dart형으로 치마의 일부에 주름을 잡은 치마에 대한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글에서는 '가로 다트(dart)형 치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박승원 (2006). 충남 청양 안심리 출토복식의 과학적 보존.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의 책, pp. 55-56.
- 고부자 (2007). 앞의 책, p. 50.
- 치마의 도련에서부터 치마를 접어 마치 2벌을 끼입은 듯한 모양으로 이 글에서 '접음단 치마'라고 하기로 한다.
- 이은주 외 (2000).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 박물관.
- 위의 책, pp. 265-267.
- 박성실 외 (2003). 파평윤씨 모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 위의 책, pp. 270-272.
- 김준권 외 (2005).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 보고서 발간 당시는 남편의 몰년과 같은 1574년으로 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 복식의 형태를 감안하여 16세기 중반으로 몰년을 수정하였다.
- 위의 책, pp. 337-339.
- 장덕호 외 (2006). 진주류씨합장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 이은주, 하명은, 안태현 (2007). 16세기 후반 전주최씨 일가 묘 출토복식의 사료적 가치. 한복문화, 10(1) pp. 155-172.
- 문경새재박물관 엮음 (2005). 금선단 치마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 문경: 문경시.
- 권영숙, 백영미 (2001). 진주강씨 부인 한산이씨, 충주 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부산: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 권영숙 외, 앞의 책.
- 박성실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59-228.
- 위의 책, p. 174.
- 송미경 (2002). 조선시대 여성 단령(團領)에 관한 연구. 복식, 52(8), pp. 151-160.
- 박성실 외 (2003). 위의 책, pp. 30-36.
- 박성실 (2005). 임진왜란 전후 출토단령의 실증적 고찰. 금선단 치마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 문경: 문경시, pp. 255-287.
- 장옷소매의 끝에 달려있는 넓은 끝동을 태수라고 지칭한다. 장옷의 소매 또한 시대별 특징이 나타난다.
- 칼깃 저고리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남자저고리라고 분류되었지만, 시대에 따라 여자저고리일 가능성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 준비 중이다.
- 신희내 외(2006). 광주 양산동 회곽묘 출토유물 보존처리. 서울: 광주광역시 북구청, (주)엔가드 부설 문화재연구소 공동.
- 이은주, 하명은, 안태현 (2007). 앞의 책, p. 167.
- 이은주 외 (2000).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 박물관.
- 권영숙 외 (2007). 앞의 책.
- 장옷 소매의 끝동에 해당되는 태수가 시대가 흐르면, 소재의 끝동으로 바뀌면서 turnback cuffs의 형태로

- 된다. 이를 '거들지'라고 칭한다.
- 40) 이상은 외 (2007). 충북 영동 성산 배씨 문중 기증 16·17세기 출토복식. 서울: 건국대학교 박물관.
  - 41) 고부자 (1999). 日迎 出土 高靈 申氏 遺物 小考. 한국복식, 17,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pp. 41-128.
  - 42) 목판깃의 끝부분이 잘려나간 형태의 깃으로 '깎은 당코깃'이라고도 하나, 넓은 의미에서 당코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당코깃이라 칭한다.
  - 43) 김성환 외 (2007). 김학 합장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 44) 박성실 외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p. 104-107.
  - 45) 김일근 외 (1991). 忘憂堂 郭再祐 從姪 郭澍의 再室 晉州河氏 墓 出土文獻과 服飾調査報告書, 대구: 건들바우박물관.
  - 46) 진주하씨의 생몰년은 확실하지 않았으나, 이은주 (2001). 17세기 전기 현풍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복식, 51(8)에 의해 1652년으로 밝혀졌다.
  - 47) 저고리 안깃은 여러 종류가 있다. '완전 들여 달린 형'은 김일근 외(1991) pp. 102-105. 그림 3·4·5 참고.
  - 48) 고부자, 박성실 (1990). 여주 출토 동래정씨(사암공파) 유물소고. 한국복식, 8, pp. 71-124.
  - 49) 이은주 외 (2001).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경기도 박물관.
  - 50) 고부자, 박성실 (1992).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1615~1685년) 遺物 小考. 한국복식, 10, pp. 107~136.
  - 51) 원삼의 고정(固形)이라고 한 것은, 동래정씨의 원삼깃 모양이 U자형이라기 보다는 여자 단령의 깃 모양인 O자 형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 외, 옷길이나 소매 모양 등도 여자단령에서 원삼으로 이행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 52)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김원택 가(家)의 복식은 도록에 기재되어 있는 복식을 참고하여, 출토복식의 종류와 점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복식만 수록한 것이라 생각된다.
  - 53) 장인우 외 (2006).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 복식. 청주: 충북대학교 박물관.
  - 54) 김미자 외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용인: 경기도박물관.
  - 55) 고부자 (2003). 충남 예산 출토 坡平 尹氏(女, 1735-1754)유물 연구. 韓國服飾, 2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p. 77-169.
  - 56) 조효숙, 안지원 (2003). 백담사 목조 아미타불 복장 저고리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衿海祝典, 서울: (재) 만해사상실천선양회, pp. 143-167.
  - 57) 장인우 외. 앞의 책.
  - 58) 위의 책.